

치 사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하심, 그리고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다 함께 축원합니다.

문화유산의 수호자이자 불교문화 발전의 동반자이기도 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열 번째 회원전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장소를 바꾸어 한국문화를 대표하고, 한국관광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경복궁에서 작품전을 갖는다기에 더욱 기쁘고 반갑습니다. 전시작품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풍성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여년전 우리가 수용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생활과 신앙에 있어 민족문화의 모체역할을 해왔습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론 화려하고, 때론 소박하지만, 영원히 변치않는 멋과 감동을 주는 불교문화의 정수를 볼 수 있고, 그 근처에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는 수많은 장인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선인의 지혜와 장인들의 매운 손맛이 베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한눈 팔지 않고 평생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혼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제를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을 열고, 또 전통으로 현대와 미래를 열어가는 5,600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여러분, 특히 이재순회장과 출품작가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전시가 우리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